

북스

Books

이름없는 풀꽃들이 들려준 삶의 의미

탐욕스런 어른들이 사는 마을, 악마는 어른으로는 모자라 아이들을 하나 둘 데려가기 시작했다. '안젤리카'로 불리는 한 병약한 아이만 빼고, 사람들은 뒤늦게 마을에 안젤리카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을 동동 구른다. 한 요정이 침대에 누워있는 안젤리카에게 나타나, "마을 밖 개울의 키가 큰 약초를 캐서 달여 마시라"고 주문한다. 단 착한 사람이 캐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욕심많은 어른들은 마을에서 천대받고 쫓겨난 '착한' 거저를 불러 약초를 캐달라고 부탁한 뒤 안젤리카에게 차를 마시게 한다. 차를 마신 안젤리카는 건강을 되찾았고, 약초 다발을 집집에 걸어두자 더 이상 악마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선초'(속명 안젤리카·Angelica)는 악귀를 쫓는다고 해서 '신성한 영혼의 뿌리'라고도 불린다.

오스트리아의 동화작가 폴케 테게토프가 쓴 '식물 동화'는 유럽인들 사이에 구전돼 온 식물들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 17편을 엮은 책이다. 저자가 쓴 30여편의 동화는 세계적으로 1천만부 이상 팔렸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산책길이나 등산로 때로는 보도블럭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은 저자의 손을 거쳐 기쁨, 정직, 인내 등 삶의 가치들로 다시 태어난다.

'라일락'은 한 목동에 의해 왕과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데 쓰이고, '로즈마리'는 주변 식물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세상을 밝히는 향기 덕분에 예수의 말구유에 눈부신 꽃을 피운다. '민들레'는 흙씨가 돼 사랑을 전하고, '라벤더'는 그 향기로 실신한 왕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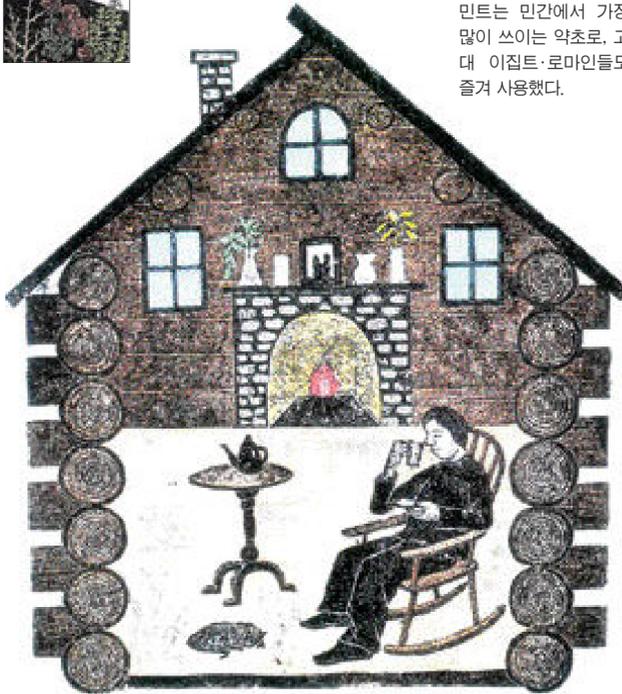
운 좋은 한 남자는 자신이 즐기던 '페퍼민트' 차로 아픈 이들을 치료해 마법의 선물들을 받게 되고, 한 수도사는 '벨리사'를 이용해 도적을 골탕먹이며, 착한 꼬마는 '회향'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누나의 병을 고친다. 각 에피소드에 결여된 환상적인 느낌의 판화 일러스트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돕는다.

책을 펼치면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잠들던 때가 생각난다. 번역자 장혜경씨는 "하늘을 울려다볼 수 있는 여유와 땅을 살필 수 있는 가슴을, 날마다 달마다 색깔을 바꾸는 나무와 꽃과 풀들을 흠뻑 들이켜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을" 준다고 말한다. 바쁘게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름 없는 풀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시 살아난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을 물러주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저녁 무릎 한 칸에 자리 잡고 누운 자녀에게 '식물 동화' 한 편을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 (예담·9천5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식물동화 폴케 테게토프 지음



책 속 판화 일러스트 중 하나. '페퍼민트' 차를 즐기던 남성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마법의 선물을 받게 된다. 페퍼민트는 민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초로, 고대 이집트·로마인들도 즐겨 사용했다.



과학 교양서

'사이언스 마인드' 시리즈 5권 출간



과학 교양서 '사이언스 마인드' 시리즈 1차분 5권이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1권 '이기적인 성', 2권 '위대한 건축, 우주', 3권 '즐거운 숫자나라 산책', 4권 '방사능, 파괴인과 치료인가', 5권 '인간은 진화의 최후 완결판인가' 등은 눈높이를 준비하는 청소년이나 기본적인 과학상식이 필요한 일반인들의 과학 마인드를 키우도록 쉽게 풀었다.

프랑스 엘립스(ellipses) 출판사의 과학 교양서 시리즈 'Esprit des Sciences(과학의 정수)' 가운데 국내 출판사 측이 선별한 책을 번역한 뒤 전문가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게 감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도 '원자의 해부학', '고통받는 지구', '생활 속 통계학'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웅진지식하우스·각권 8천원>



신화가 된 CEO의 남다른 선택

칼리 피오리나의 자서전 '힘든 선택들'

'세계 최고의 여성 CEO', '힐러리에 필적할 파워맨'으로 불린 칼리 피오리나(Carly Fiorina·52)는 항상 언론과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최고 경영자였다. 대학 중퇴,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당당히 세계적 기업 HP(Hewlett-Packard)의 최고경영자에 오르기까지 그녀의 삶은 그 자체가 '신화'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펴낸 '칼리 피오리나·힘든 선택들'은 이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화려한 삶이 아닌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400쪽에 달하는 자서전을 관통하는 그의 경영철학은 '인간'이다. 그는 '비즈니스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내 파트너십과 신뢰를 쌓아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을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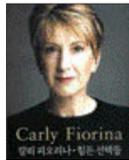
구해왔다고 고백한다.

무엇보다 피오리나가 HP를 변화시킨 과정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될 듯하다.

피오리나가 HP를 능동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변화'였다. 그 바탕에는 '변화를 겪을 때마다 기회와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서는 누구나 독단에 빠지기 쉽지만 그녀는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오만이나 독선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읽은 소포클레스의 '안



티고네(Antigone)'는 삶의 지침서였다. 안티고네는 원칙을 버릴 것을 강요하는 압박에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여성의 이야기다.

그는 안티고네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을 가다듬었다.

평사원과 관리자를 거치는 동안 그녀는 항상 동료들이 외면하는 '그늘진 곳'을 택하는 등 도전하는 삶을 추구했다.

HP로 회사를 옮기기 전 AT&T사에 근무했을 때는 '해낼 일이 많은 곳'이라는 이유로 회사 내 기피대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진로를 정한 뒤 마침내 탁월한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사장단에 입성한다. <해냄·1만5천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천년의 비밀 운주사=우리나라 최대의 불가사의로 손꼽혀 온 화순의 운주사. 작가 최홍씨는 운주사의 미스터리를 추적하면서 운주사가 해상 영웅 장보고를 추모하기 위한 유적지라는 색다른 주장을 펼친다. <바보새·1만2천원>

▲여자 혼자 떠나는 길 여행3=소심하고 겁났고 까탈스러운 여성 도보여행가 김남희가 세번째 여행 에세이를 펴냈다. 이번 '중국·라오스·미얀마' 편은 전업 여행가로서 첫발을 댄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이다. 우리 땅에서 가까운 나라지만 무관심했던 나라들의 소박한 여행기를 선사한다. <미래M&B·1만5천원>



▲전태일 통신=전태일기념사업회가 2005년 10월부터 1년간 인터넷 미디어 '프레시안'에 연재한 글들을 묶었다.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등 사회의 약자들이 직접 경험한 현장 속 이야기 46편을 통해 우리 시대 전태일을 조명한다. <후마니티스·1만원>



▲북유럽 디자인 경영=이건희 삼성 회장이 발전 모델로 제시할 정도로 뛰어난 북유럽 기업들의 디자인 경영을 살펴본다. 노키아, 볼보, 사브, 이케아 등 소비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디자인으로 성공한 북유럽 기업들을 만난다. <매일경제신문사·1만2천원>

▲거울 속의 원숭이=과학자 이언 테더솔이 여전히 논쟁이 치열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진화를 방대한 지식과 참신한 시각으로 분석한다. 진화론에 관한 균형적인 시각을 잡는데 안내자 역할을 한다. <해나무·1만1천원>



▲찰나의 외면=게그맨 이병진이 펴낸 포토에세이집. 그가 렌즈를 통해 본 세상과 사진에 관한 짙은 이야기들을 묶어냈다. 제목은 '찰나의 거장'인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삼호미디어·1만2천원>



▲여러분이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황우석 사태'를 가장 처음 보도한 MBC 'PD수첩' 한학수 PD가 들려주는 사건 취재기다. 황우석 논란의 발단부터 결말까지 사건의 경과를 따라가면서 사태의 진상을 그린다. <사회평론·1만3천원>

▲토스카나, 달콤한 내 인생=25년간 할리우드에서 활동해온 방송작가 겸 제작자 필 도란의 좌충우돌 이따금씩 정찰기를 그린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화려한 할리우드의 인기 작가에서 소박하고 정겨운 이웃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전달한다. <푸른 숲·1만1천원>



▲역사 속의 이단자들=매혹과 환멸의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들을 통해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살핀다. 작가 시부사와 다쓰히코는 남만주의의 상징 루트비히 2세, 20세기 러시아 미술사 구르디예프, 프랑스 혁명기 공포시대를 이끈 생쥐스트 등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엿본다. <기림기획·9천원>

FURSYS 가 만든 의자는 다릅니다
퍼시스의 속삭임 노하우로 만든 첨단 메카니즘의 전 시리즈

무등산업 (주) 광주광역시 서구 남부동 1000-100
100-1000111-2299, 100-1000111-2299

FURSYS 가 만든 의자는 다릅니다
퍼시스의 속삭임 노하우로 만든 첨단 메카니즘의 전 시리즈

JOY, REPLY, FURSYS

무등산업 퍼시스남광주전시장 (062)225-5100